

발표 요약문

항만, 팬데믹 시대에 LA가 보유한 최고의 자산

진 세로카

LA 항만청 청장

키워드: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 물류, 공급망

한 지역의 코로나 19 위기 대응의 성패는 코로나 19 확산 차단 역량으로 판가름 납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성공은 코로나 19에 따른, 변화하는 경제, 사회적 영향에 적응하고 대응하는 기관의 지속적 역량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항만은 많은 경우 전략적 상업 및 군수 자산으로 인식되지만 코로나 19 규모의 공공 보건 위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응전을 지원하는 데 항만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항만은 위기 대응 과정에서 의료 물자 수송 촉진뿐 아니라 관계와 기술, 인적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막대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LA시 최고 물류 책임자를 겸하고 있는 LA 항만청 진 세로카 청장은 본 발표에서 인구 기준 미국 2대 광역시를 뒤흔드는 코로나 상황과 이러한 상황에 대한 LA항의 대응을 논의합니다.